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김성태* · 양진건**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교육사상의 전파와 제주교육 |
| II. 송시열의 생애와 제주유배 | 1) 논쟁의 전파 |
| 1. 송시열의 생애와 학통 | 2) 가족의 영향 |
| 2. 송시열의 제주유배생활 | 3) 제자들의 활동 |
| III.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4) 사상의 계승 |
| 1. 굴림서원과 제주오현 배향 | IV. 결론 |

개 요

송시열은 송자라 일컬어질 정도로 조선시대 후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숙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다 83세에 제주도로 유배를 왔다. 제주도는 변방인 데다 조선시대 동안 출륙금지령 때문에 교육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치적 실각으로 제주도로 유배 온 인물들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대부는 정치인이자 교육자였기에 교육적 영향력도 상당했다. 송시열도 향교에 보관된 책을 빌려 적소에서 손자를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 읽으며 토론을 벌였고,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저술활동을 벌였다. 유배지의 한계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인들과 학문적 토론을 나눴다. 비록 제주도에 머문 시간이 100여 일에 불과하였지만 교학

* 제주특별자치도 위미중학교 교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활동에 이바지한 바가 커서 서원 배향이 금지되던 시기에도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굴림서원에는 김정을 비롯하여 김상헌, 정은, 송인수가 배향되어 있었는데 송시열이 배향되면서 제주오현이 확립되었다. 제주오현 배향은 제주교육사상사에서 도통의 계보를 확정 짓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크다. 또한 송시열의 문인들이 행정가나 유배인으로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송시열을 기리고 교학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존중과 권진응은 조선 후기 인물성동이논쟁을 제주도에 알렸고, 김춘택은 저술활동을 통해 교육적 분위기를 높였다. 김정희는 송시열의 유배지를 찾아 시를 남겼고, 최익현은 독서, 저술, 교육 활동을 망라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제주도 교육계에 기여하였다.

주제어 : 송시열, 유배, 교육사상, 제주오현, 굴림서원

I. 서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년, 선조 40-1689년, 숙종 15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자(子)’자를 붙여 송자(宋子)로 일컬어졌던 학자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조선 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주름잡았다. 또한 성리학이 조선의 통치이념에 머물러 지배층만이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을 두 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을 통해 예(禮)를 생활양식이자 사회규범으로 확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송시열은 83세가 되던 1689년(숙종 15) 1월에 세자 책봉에 반대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가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가 제주도에 머문 시간은 100여 일 남짓이었지만 그가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후일 제주오현(濟

州五賢)의 한 사람으로 배향됨으로써 제주전통교육에 대한 그의 효과나 작용을 중요하게 인정한¹⁾ 사실만 두고도 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송시열의 생애, 교육사상, 제주유배 생활 그리고 교육적 관계를 통한 교육사상의 전파 과정을 살펴 그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influence)이란 유배인들이 유배지 현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형식적, 비형식적인 교육적 효과나 작용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지로서나 의의를 가졌기에 교육적 영향을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치적 실각 등으로 제주에 온 유배인들은 사대부 특성상 뛰어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은 제주도의 교육적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대 거유(鉅儒)였던 송시열의 제주도 유배 기간에 제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방 사료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파편을 가지고 전체를 그려 보려는 고고학적 접근과도 같은 교육사적 상상력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에 관한 의미 있는 성찰과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지방교육사와 한국교육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양진건, 『濟州 五賢의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II. 송시열의 생애와 제주유배

1. 송시열의 생애와 학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송시열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지내다가 8세(1614)에 친척이자 평생지기인 송준길(宋浚吉)과 송준길의 아버지에게 배웠다. 12세(1618) 때 아버지로부터 『기묘록(己卯錄)』,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 조광조(趙光祖), 이이(李珣) 등을 본받게 되었다. 19세(1625)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예인 도사 이덕사의 딸 한산 이씨(韓山 李氏)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부터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25세(1631)에 김장생이 죽자 그의 아들 김집(金集) 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1633)에 생원시(生員試)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름을 떨쳤고, 29세(1635)에 뒷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가 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소현세자와 함께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송시열은 낙향하여 10여 년간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43세(1649)에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자 송시열도 벼슬에 나아갔다. 이 때 그가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렸는데,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 의지와 부합하여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하였고, 조대비(趙大妃)의 복제 문제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났으며, 김우명(金佑明)과 충돌하고 현종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62세(1668)에 우의정에, 67세(1673)에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아갔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다. 69세(1675)에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장

기(長鬢), 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74세(1680)에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83세(1689)에 숙의 장씨가 아들을 낳자 원자(元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했는데, 이 때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官爵)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송시열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 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했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다. 영조 및 정조대에 노론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었다.

송시열은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었다. 기본적으로 이이를 매개로 주자에게 다가섰는데, 그렇다고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기발이승지(理發氣隨之 氣發理乘之)’로 대표되는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발이승지’만 인정한 이이의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더욱 발전시켜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일원론을 확립하였다.²⁾ 또한 송시열은 이이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더욱 발전시켜 『심경석의(心經釋義)』를 통해 심학을 완성하고,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연구하여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義)』와 『절작통편(節酌通編)』을 지었으며, 제주도에서 유배하는 동안에도 학문에 매진하여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를 썼다. 송시열은 성리설(性理說)뿐만 아

2) 김익수, 『송시열의 직철학과 교육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273~274쪽.

나라 조선 후기의 예설(禮說), 의리설(義理說), 벽이단설(關異端說), 경세설(經世說)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시대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³⁾

송시열의 교육법은 공부법과 수양론(修養論)으로 나눌 수 있다. 공부법은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있는데 격물치지의 방법으로 독서를 들었고, 독서할 때에는 단계를 강조하였다. 『소학(小學)』과 사서(四書)를 건너뛰고, 『시경(詩經)』을 읽는다던가, 문장을 배우기 위해 사서를 접어 두고 장자, 사마천 및 외가서(外家書)를 읽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보았다.⁴⁾ 송시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목표로 하는 수양론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특히 ‘직(直)’을 핵심 개념으로 주목하였다.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과 성인이 만사를 수응하는 것은 직(直)일 뿐이므로 공자와 맹자 이후로 전수한 것이 다만 이 하나의 직 자뿐이었고, 주자가 임종(臨終)하실 때 문인들에게 말한 것도 이 직 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했던 말,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본디 직(直)한 것이다. 직하지 못하면서 생존하는 것은 요행인 것이다.’⁵⁾를 거론하였고,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 역시 직과 다름없다고 보았다. 주자 또한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수응하는 소이는 직(直)일 뿐이다.’라고 하였음을 되새겼다.⁵⁾ 다시 말해 송시열은 공자, 맹자, 주자를 관통하는 이치의 하나로 직을 받아들여 수양법의 중심으로 삼았다.

3) 정낙찬, 『송시열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43집, 한국교육철학회, 2011, 248쪽.

4) 『宋子大全附錄』 第17卷 語錄 4 崔慎錄.

5) 『宋子大全附錄』 第11卷 年譜 崇禎62年 己巳.

2. 송시열의 제주유배생활

송시열은 1689년(숙종 15) 2월 8일 제주도로 향했다. 소식(蘇軾)이 철심석간(鐵心石肝)이라고 했던 말과 주자가 유안세(劉安世)를 평했던 말을 들며, “나는 책임을 끝까지 다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⁶⁾라며 굳건한 모습으로 시를 지었다.

위로는 주자를 아래로는 율곡을 위해
폐단을 제거코자 마음을 다했는데
이제 탐라국을 향해 떠나면서
영릉 바라보고 효종 생각에 울었다네⁷⁾

주자와 이이의 뜻을 받들어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실각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으며 뜻이 잘 통했던 효종에 대한 그리움이 잘 묻어나 있다.

송시열은 강진을 거쳐 제주목으로 향했다. 일행이 보길도에 이르자 풍랑이 일어났다. 바람이 잦길 기다린 후 돛을 올려 제주도를 향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시를 남겼다.

쫓기는 나그네 외로운 배로 떠나니
큰 물결 만 리에 깊어라
평생에 충의를 지켰으니
우제묘(虞帝廟) 찾을 필요 없구려
공자께서는 바다에 뜨려 했고
부옹도 염예의 시절 있었지

6) 吾責塞矣 死生命也(上揭書).

7) 上爲閩翁下栗翁 要除弊事罄愚衷 如今却向耽羅去 回望寧陵泣孝宗(『宋子大全』第二卷 耽羅道中寄示畏齋玄).

천추에 서로 느끼는 뜻을
오늘날 그 누가 알라⁸⁾

송시열은 시를 통해 자신이 할 바를 다하였으니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고, 공자와 정자의 뜻을 이은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주도 별도포에 도착하여 제주목 성안 산지골에 사는 아전 김환심(金煥心)의 집을 적소로 정했다. 송시열은 장기(長鬢)로 유배 갔을 때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쓰고⁹⁾, 거제에 있을 때 반곡서당을 열어 후학을 가르친 것처럼¹⁰⁾ 제주에서도 쉬지 않았다. 매일 손자 송주석과 함께 『주자대전』, 『주자어류』, 『역학계몽』 및 『강목』 등을 읽었다. 제자 이선이 구해준 『논맹정의』의 내용을 『논어혹문』과 『맹자혹문』의 해당 조목 아래 차례대로 인용해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編修)하고 서문을 쓴 후 권상하에게 편지를 보내 교감 수정하라고 하였다. 그가 제주에 머문 기간은 111일 뿐이었지만 끊임없이 독서와 저술 활동을 펼친 덕에 유교적 교화가 융성해졌다.¹¹⁾

송시열은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가족과 함께 온 데다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인데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기도 하나 언제 복권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정국 탓에 엄격한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범으로 유배된 인물이 고위 관료로 복권되는 일은 다반사였다.¹²⁾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시를 남겼다.

8) 逐客孤舟去 鯨波萬里深 平生仗忠義 虞廟不須尋 孔聖思浮海 涪翁灑淚時 千秋相感意 今日有誰知(『宋子大全』第二卷 耽羅舟中).

9)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2000, 272~273쪽.

10) 이덕일, 위의 책, 277쪽.

11)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189쪽.

아우와 형 손자와 자질이
하늘 끝에서 같이 있음 기쁘구나
백수 어느 때 고향을 향할거나
낮선 타향 고향만 같구려¹³⁾

송시열은 두 아우와 손자 주석에게 글을 주어 김정(金淨),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 송인수(宋麟壽)를 모신 굴림서원(橘林書院)에 고하게 하였다.¹⁴⁾ 또한 정이(鄭洙)¹⁵⁾, 권상하(權尙夏)¹⁶⁾, 진강(鎭綱)¹⁷⁾, 박태보(朴泰輔)¹⁸⁾ 등과 서신을 나누며 학문을 논했다. 한라산을 오르고 싶은 뜻도 있었으나 유배인 처지인 탓에 단념하였다.¹⁹⁾ 가끔 외출하게 되면 행낭에 포나 과일을 가지고 나가 시문을 지었다.²⁰⁾ 제주시 오현단 서쪽 암벽에 새겨져 있는 증거와 주자의 학문은 쌍벽으로 서 있다는 「증주벽립(曾朱壁立)」이라는 큰 글씨는 서울 성균관에 있는 송시열의 필적을 탁본하여 1856(철종 7) 판관 홍경섭이 바위에 새긴 것이다.²¹⁾

12)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48쪽.

13) 弟兄孫子姪 天外喜同堂 白首何丘首 他鄉似故鄉(『宋子大全』第二卷 耽羅謫所).

14) 『宋子大全附錄』第11卷 年譜 崇禎62年 己巳.

15) 『宋子大全』第115卷 書 答鄭混源.

16) 『宋子大全』第89卷 書 與權致道.

17) 『宋子大全』第102卷 書 答閔士正.

18) 『宋子大全』第113卷 書 與朴士元, 朴受汝.

『宋子大全』第113卷 書 答朴士元.

19) 이덕일, 앞의 책, 374쪽.

20) 전웅, 『유배, 권력의 뒤안길』, 청아출판사, 2011, 256쪽.

2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들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266쪽.

Ⅲ.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1. 굴림서원과 제주오현 배향

제주유배 기간이 100여 일에 불과했던 송시열의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는 굴림서원(橘林書院)에 제주오현의 한 사람으로 배향된 사실이다. 송시열의 내도 자체가 제주유림에는 교육적 충격이었으며 큰 자극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갑술환국(1694)으로 서인(西人)이 집권하면서 그가 신원(伸冤)되자마자 서둘러 굴림서원에 향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굴림서원은 1578년(선조 11)에 조인후(趙仁後) 판관이 1521년(중종 16)에 기묘사화로 유배와 사사(賜死)된 김정의 냇을 위로하기 위하여 묘(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²²⁾ 성훈(成渾)의 문인으로 당대의 명문장자인 임제(林悌)가 절도사인 부친을 뵈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기(記)를 썼고,²³⁾ 1659년(효종 10)에 이회(李檜) 목사가 제주유림 김진용(金晉鎔)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藏修堂)을 건립하자²⁴⁾ 1665년(현종 6)에 최진남(崔鎭南) 판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액(懸額)하였다.²⁵⁾

굴림서원에는 김정, 김상헌, 정은, 송인수 그리고 송시열 이렇게 5명의 유현이 배향되었다. 김정이 1578년에 처음 배향되고 1695년에 끝으로 송시열이 배향된 것을 보면 그 기간이 대략 백여 년에 달했음을 알

22) 宣祖 十一年 春 判官趙仁後 建沖庵廟于嘉樂川東(金錫翼 『耽羅紀年』).

23)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林悌 『南溟小乘』).

李元鎭 『耽羅志』 詞廟條.

24) 牧使李建藏修堂 是因金晉鎔議 遂建學堂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偁興學事(金錫翼, 前揭書).

25) 顯宗 六年 判官崔鎭南 移建沖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上揭書).

수 있다. 배향을 통해 제주인들의 교육적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적 활동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교육지도성의 모범이다.

한국교육사의 서술 과정에 있어서 ‘오현(五賢)’이란 단지 다섯 명의 사상가를 거론하는 산술적 의미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내용으로서 한국교육사의 의미와 깊은 관련을 맺는 중요한 교육학적 개념이다. 일찍이 한국 성리학의 도통(道統) 계보 형성에 있어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이른바 오현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정몽주(鄭夢周) → 길재(吉再) → 김숙자(金叔滋) → 김종직(金宗直) → 김굉필 →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道學) 연원(淵源) 확정 작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상의 정당한 계보(系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이가 창도한 율곡학과(栗谷學派)에서는 따로 그들의 오현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이는 특정 사상가의 주관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고 그의 주관과 어우러져 성립된 당대의 지성 풍토, 규범 체계, 생활 관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조망해 보려는 노력으로서 넓게는 영남학과(嶺南學派)와 기호학과(畿湖學派) 간의 사상적 갈등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했다.

이렇게 오현의 계보 설정이란 곧 문묘 종사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묘종사의 심각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문묘 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이른바 굴림서원에 배향된 ‘제주오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제주오현은 그 기원이 도통의 확립을 둘러싼 치열한 이념 논쟁에서 결과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제주 지방 자체의 자의적 수준에 의해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목민관이나 유배 등

의 이유로 입도(入島)하여 제주와 관계를 맺은 유현들 가운데서 오현이 선정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한 상호 설명력을 구성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도의 교학질서를 해명하는 방향을 암시한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인(李瑱)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조부인 이약동(李約東)을 의논도 하지 않고 삼현 위에 위패를 모시자 1675년(숙종 1) 부호군 이선(李選)이 어사로 순무하다가 제주의 폐막(弊瘼) 40조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약동의 위패를 철거하라는 어명이 내려져 제주오현에서 빠지게 되었던 예도 있다.²⁶⁾ 그런가 하면 송인수의 배향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제주오현 가운데 김정과 정은 그리고 송시열은 유배인으로서, 김상헌은 안무어사로, 송인수는 목사로 각기 내도하게 된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사회 역사적 위상 속에서도 몇 가지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제주도에 끼친 교육적 영향이란 시혜적 차원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교육사상의 정당한 질서인 도통(道統)과의 연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들이 당대를 계승하는 시대정신의 문맥을 직·간접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관련성을 찾게 된다.

즉, 김상헌과 송시열은 도통의 핵심세력으로 조선시대 교육사상을 발전적으로 주도하였던 기호계열의 큰 스승(大師)이며 김정이나 송인수, 정은은 영남계열의 학자들과 사제 혹은 종유관계를 통해 성리학의 도통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26) 副護軍李選巡撫濟州 歸奏島中弊瘼四十條 有曰, “先正臣文簡公金淨、文正公金尙憲、文簡公鄭蘊, 或編配或奉使, 前後入島。金淨舊有祠, 後以金、鄭追享, 牧使李埴又以其祖父李約東, 不議於士林, 置之三賢之上, 有辱三賢, 莫此爲甚, 不當仍置。三臣書院, 亦宜宣額。” 下備局。備局回啓言, “賜額事重, 有難輕議。李埴置其祖於三臣之上, 不無循私妄作之迹, 位版使之撤去。” 上允之 (『肅宗實錄』, 元年 9月 25日).

김상헌과 정온이 활동하던 선조(宣祖)대는 명·청 교체의 격변기로 이러한 정세의 급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리학적 도통이 무너지는 것인 만큼 존주(尊周)의 대의(大義)가 절규되었고 그런 명분을 통하여 이협(夷狹)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의 저항이 척화의 이름으로 강조되었는데 김상헌과 정온이 정의(淸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또한 상호관련을 맺는다.

이들이 굴림서원에 향사된 것도 그들이 병자호란 중의 충신과 의사로서 제주도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헌의 경우는 정의와 문명(文名)이 송시열의 추숭으로 후인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는데 송시열은 평소 김상헌을 대의의 종주(宗主)라 생각하고 서지(書贊)를 올려 사제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굴림서원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향된 셈이다.

송시열이 굴림서원에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서원첩설(書院疊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은 모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 금령이 엄격하던 때였다.²⁷⁾ 이런 와중에 송시열이 향사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클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목사였던 장인식(張寅植)은 후일 굴림서원을 정비하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특히 송시열 배향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암 선생의 휘는 시열(時烈)이요, 자는 영보(英甫),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선현(先賢)의 학업을 이어받고 후진

27)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柳尙運 又請 如有疊設 新建之祠 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 定式施行 上皆許之(『肅宗實錄』 21年 6月 壬辰條).

을 열어주어 크게 사문(斯文)(儒學)에 공이 있었고,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왕도(王道)를 진작시켜 편벽되고 음란한 행위를 막았으며, 사악한 학설을 그치게 하여 말학(末學) 후생(後生)으로 하여금 그 말을 외우고 그 일을 본받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랑캐와 금수의 지역을 면하게 한 것은 실로 공(公)이 홍수를 막고 맹수를 몰아낸 데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이 일찍이 정통(正統)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은 것도 또한 주부자(朱夫子)의 심법(心法)인 까닭으로, 일찍이 말하기를, ‘주자(朱子)는 공자(孔子) 이후에 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나 또한 말하기를, ‘선생은 주자(朱子) 이후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아, 다섯 선생이 강설(講說)한 바는 주자(周子)(周敦頤)·정자(程子)(程顥·程頤)·주자(朱子, 朱熹) 네 부자(夫子)의 도(道)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 도학(道學)과 공업(功業)은 사람의 이목에 있는 것이니, 말학(末學)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 우암 선생은 율곡(栗谷)과 사계(沙溪) 두 선생의 적통(嫡統)으로 전해옴으로써 이미 충암·규암 제선생(諸先生)의 정맥(正脈)을 이어받았고, 그 병이(秉彝)와 집중(執中)의 대의(大義)인 즉은 청음·동계 두 선생의 사적(事跡)에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선배들이 이른바 우암 선생은 곧 동유(東儒)가 대성(大成)한 것을 모아놓았다 한 것도 실제로 정확한 논거였다. 숙종 기사(숙종 15, 1689) 3월에 귀양 와서 겨우 한 달을 지내고 압송되어 가다가 중도에서 후명을 받았으니, 기사(己巳)(숙종 15, 1689)의 화(禍)를 또한 차마 말할 수 있으랴. 선생은 일찍이 무인(武人)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서생(書生)의 투필(投筆)은 예전에도 있었으나 금일 바라는 바는 옥문관(玉門關) 밖의 일뿐만이 아니라 한 부의 춘추(春秋)를 또한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자(小子)가 여기

에 깊이 힘쓰고 마음에 남기어 잊지 아니하였으나 춘추(春秋)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늦게나마 손오(孫吳)의 술(術)(兵法)을 좋아하였다고 하지 마는 현인(賢人)을 사모하는 정성은 여느 사람보다 배나 간절하여, 선생의 유허비각(遺墟碑閣)을 수리하고 서원의 외대문(外大門)과 내신문(內神門)을 창건하여 새롭게 하였다.²⁸⁾

굴림서원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까지 근 212년간을 존속되었는데 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통을 추증하고 한편으로는 철학과 역사의 큰 스승(經史大師)을 흠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그 가치는 큰 것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큰 스승(大師)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28) 尤庵宋先生 諱時烈字英甫諡文正 繼往開來 大有功於斯文 而闢異端陳王道 距詖滯息邪說 使末學後生 論其言法其事 至今得危於夷狄禽獸之域者 實功可擬於抑洪水驅猛獸 而先生嘗以尊揚爲己任 亦朱夫子心法 故嘗曰 朱子是孔子後一人 余亦曰 先生是朱子後一人也 噫 五先生之所講 不出乎周程朱四夫子之道矣 其道學功業 在人耳目 而非末學之所敢知 然惟我尤庵宋先生 以稟谷沙溪二先生之嫡傳 既承冲圭諸先生之正脉 而其所秉執之大義 則於清桐二先生之事 尤有光矣 先輩所謂尤庵先生 卽集東儒之大成云者 信的論也 肅廟己巳三月 入來纔踰月 被逮而去 受後命於中道 己巳之禍 尙忍言哉 先生嘗戒武人曰 書生投筆 古亦有之而今日所望 不但玉門關外事而已 一部春秋亦不可不讀 小子於此 深有所倦倦服膺 粗解春秋之義 故雖晚悅孫吳之術 慕賢之誠則倍切餘人 修治先生遺墟碑閣 創建書院外大門及神門而新之 因伐石而遂立 牲繫于三分一之庭 而刻文其上云 崇禎紀元後 四上章闈茂 四月日 通政大夫濟州牧使 玉山後人 張寅植 述(『橘林書院廟庭碑記』).

2. 교육 사상의 전파와 제주교육

1) 논쟁의 전파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자 송시열의 수제자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를 왔던 권진응(權震應)의 증조부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론적 탐구에 있어 절정인 경우가 두 차례였다. 그 한 경우가 16세기 중엽에 발생한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의 논쟁이라면 또 한 경우는 18세기 초두에 발생한 ‘인성물성(人性物性)’의 동이문제(同異問題) 논쟁이다. 특히 후자의 논쟁을 일컬어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 하는데 이 호락시비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풍을 계승하는 권상하의 문하에서 처음 발단한 것이다.

권상하의 문하에는 소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일컬어지던 8명의 학자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특히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이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이들이 곧 논변을 벌인 주인공이다. 당시 한원진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이간은 서로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견해의 대립을 보였다. 그들의 논쟁은 친구나 제자들에게 미쳐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은 두 견해 중 어느 한 편을 지지 동조함으로써 마침내 많은 학자들이 학파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제주 유배인이었던 권진응은 바로 한원진의 제자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권진응으로 이어지는 송시열 교육사상의 전파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유배인 이존중(李存中) 역시 강문팔학사 이간의 제자였다. 그는 1751년(영조 27)에서 1753년까지 제주도 정의현 적소에서 지방유생과 자제들에게 학문과 도덕을 교학하였는데 권진응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대표적 논쟁인 호락논쟁의 과정을 제주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송시열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2) 가족의 영향

송주석(宋疇錫)은 송시열의 손자이자 송기태(宋基泰)의 아들이다. 송주석은 송기태와 함께 송시열을 모시고 제주로 왔다. 유배지에는 송시열의 동생인 송시도(宋時燾), 송시걸(宋時杰)도 동행했다. 송주석은 제주에서는 송시열과 함께 『주자대전』, 『주자어류(朱子語類)』, 『역학계몽(易嬾啓蒙)』, 『강목(綱目)』을 읽었다. 연보²⁹⁾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송주석은 제주로 올 때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굴림서원에 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동행했던 가족들을 통해서도 송시열의 영향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권이진(權以鎭)은 송시열의 외손이다. 22세까지는 송시열에게 배웠으나 그 후에는 윤중(尹拯)의 문인이 되었다.³⁰⁾ 송시열의 문인인 김춘택(金春澤)과도 가까웠다. 권이진은 1720년 안동부사로 있을 때 송시열이 제주 유배 중에 쓰고, 권상하가 교정한 『논명혹문정의통고』를 간행하였다. 권이진과 가까웠던 김춘택은 김장생의 후손으로 『구운몽』을 쓴 김만중이 종조부다. 김만중도, 아버지 김진구도 기사환국에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주로 유배를 왔으며, 김춘택도 제주에서 1701년에서 1712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였다. 1708년 순한글 대화체로 『별사미인곡』을 썼고,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겼으며, 『주자시설(朱子是說)』, 『설학강리(設學講理)』 등도 저술했다. 조부인 김만기가 송시열의 문인이었고 김춘택도 노론 일파였다. 1694년 제주도 유생 김성우가 갑술환국으로 송시열이 복권되자 굴림서원에 배향하기를 청하는 소를 올렸는데³¹⁾, 그 글을 김춘택이 대신 썼다.³²⁾

29) 『宋子大全附錄』 第11卷 年譜 崇禎62年 己巳.

30) 이종성, 『명재와 유희당의 교유관계 및 사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 제48집, 대동철학회, 2009, 75쪽.

3) 제자들의 활동

제주목사였던 이인(李瑱)은 동지사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주희의 『논맹정의(論孟精義)』를 구해 1687년 송시열에게 전했다.³³⁾ 이 책을 구하려 했으나 40여 년을 기다려야 했던 송시열은 크게 기뻐했다. 이인과 조부 이약동은 모두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청렴했고 이바지한 바가 커서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인의 묘지명을 권상하가 썼을 정도로 송시열의 문인들과도 가까웠고, 묘지명에 송시열의 뜻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³⁴⁾ 이인이 굴림서원에 조부 이약동을 배향하려던 것을 제지했던 이선(李選) 역시 제주순무어사로³⁵⁾ 송시열의 제자였다. 목사 이인이나 순무어사 이선 등은 송시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제주도에 전파한 경우들이다.

송시열의 제자 권상하의 증손인 권진웅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권정성(權定性)의 아들로서 1771년 제주로 유배 와서 대정현 강필발(姜弼發)의 집을 적소로 정하고 그곳을 ‘창주정사(滄洲精舍)’라 하여 지방유생들을 교학하였다. 창주정사(滄洲精舍)는 주자(朱子)가 죽기 전에 있었던 곳이다. 권진웅은 그 뜻을 기려 이름을 빌렸다. 또한 그는 송시열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기려 1772년(영조 48)에 『송시열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세웠다. 여기에 송시열의 영향이 드러나 있다.

오호라, 제주의 동쪽 성안 산지끝은 송시열 선생께서

31) 濟州幼學金聖雨等上疏, 請以先正臣宋時烈, 合享於橘林之祠(『肅宗實錄』 卷 28, 21年(1695 乙亥 / 康熙 34年) 2月 癸卯).

32)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77쪽.

33) 이덕일, 앞의 책, 349쪽.

34) 『國朝人物考續考』 3卷, 明流 李瑱 墓誌銘.

35) 副護軍李選巡撫濟州, 歸奏島中弊廢四十條(『肅宗實錄』 4卷, 1年(1675 乙卯 / 康熙 14年) 9月 庚戌).

귀양살이하던 옛터이다. 선생께서는 기사년(숙종 15, 1689) 3월에 오셔서 달을 넘겨 체포되어 가는 도중 다음의 어명을 받았다. 이 터는 고을 아전인 김환심의 집이었는데 갑진년에 불타고 지금은 밭이 되어 있다. 신묘년 봄에 권진응공이 선생에 대한 일을 상소하였다가 대정현에 안치되었다. 귀양이 풀린 다음 고을 선비들과 옛터를 찾아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생의 성대한 도덕과 위대한 업적에도 백년이 못 되어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우니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닌가 하므로 삼읍의 선비들이 의논하여 짧은 비석을 세워 표시함에 목사 양세현 사도가 도움을 주었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선생께서 귀양살이를 할 때 다른 일은 별로 없었고, 고을 향고의 경적을 가져다 읽었다. 떠나올 때에 과일·포·술을 갖추어 와서 축문을 지어 손자인 주석을 시켜 굴림사에 제사를 올렸다. 하루는 지팡이를 들고 (굴림서원의) 뜰을 둘러보고 빈 땅에 손수 생강을 심었다. 이 모두가 옛일을 갖추려 한 일이므로 부기한다. 승정기원 뒤 3번째 임진년(영조 48, 1772) 2월일 후학 김량행이 짓고 이극생이 쓴다.³⁶⁾

이 비문을 지은 김량행((金亮行)은 권상하의 사위이자 권진응의 대고모부다. 권진응이 비를 세우려고 했을 때 비문을 지었던 것이다. 또한 이 비문을 쓴 이극생(李克生)은 1771년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 와 있었다.³⁷⁾ 이렇게 권진응, 김량행, 이극생 등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에게

36) 嗚呼惟此濟州東城內山底洞卽尤庵宋先生棘遺墟也先生以己巳三月入來 踰月被逮而去受後命於中途遺墟始以州吏金煥心之家火于甲辰今已煙廢爲田辛卯春權公震應疎陳先生志事安置大靜旣蒙宥從州人士訪遺墟而得之歎曰先生盛德大業未及百年遺 已難尋豈非士林之羞乎遂議于三邑章甫立短碑以識之牧使梁候世絢助成焉故老相傳先生存棘中無所事惟取州校經籍裸嘗出行果脯具酒爲文使其壽錫祭橋林祠一日扶杖而循庭手自種薑於隙地此皆可備故事附記焉崇禎三壬辰二月日後學金亮行識李克生書(『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

송시열의 영향을 널리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 비를 세우게 도와준 목사 양세현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4) 사상의 계승

조선 후기에 들어서도 제주도에서 송시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김정희와 최익현의 덕이 매우 컸다. 김정희(金正喜)는 노론이기는 하나 집권층이었던 노론 내부에서 발달했던 실학파의 한 가지인 북학파에 속했다. 1840년에서 1848년까지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송시열의 유배지를 방문하고 시를 남겼다. 노론의 최고봉인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것이다.

길 가는 사람들도 단비 앞에 말 내리니
김환심의 집에서 옛 자취를 전해오네
굴림에 잔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생강 심던 그 해는 지금도 눈물짓네.³⁸⁾

시 속에는 많은 제주 사람들이 송시열을 기리고 있으나 그 자취가 퇴색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잘 묻어나 있다.

최익현(崔益鉉)은 노론 화서학파의 지도자이자 노론 위정척사파의 중심인물이었고, 1905년 을사조약에 저항한 의병장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인정되었고, 송시열과 송준길→권상하→한원진과 이간→이항로를 잇는 노론의 정통으로 간주되었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를 올렸다가 상소의 내용이 과격

37) 『日省錄』, 英祖 47年 辛卯(1771, 乾隆 36) 2月 庚辰.

38) 行人下馬短碑前 金煥心家舊躡傳 一酌橋林明志事 至今彈淚種薑年(『阮堂全集 第10卷』「尤齋遺墟碑」).

하고 방자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위리안치되는 형을 받았다.³⁹⁾

최익현의 연보에 따르면, 제주도에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주자서를 외고 또 교궁에 간직된 송시열집 1권을 빌어 잠심완색(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버렸다.”⁴⁰⁾고 하였던 것처럼 주자와 송시열에 빠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한가할 때 송서(宋書)를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견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⁴¹⁾고 아들에게 서간으로 전하기도 하고 “누생은 망령되게 송서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령을 만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읽는 법을 두세 줄 글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땠겠습니까?”⁴²⁾라고 동문인 김평묵에게 송시열에 대한 외경을 서간으로 전한다.

부친에게 보낸 장문의 서간에도 “송시열 선생 문집을 한 번 섭렵하였는데 제대로 맛을 음미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을 읽는 사이에서도 알지 못하였는 것이 열에 여덟이흠이 되는데 하물며 그 의리와 사업에 대하여 힘을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선생의 문학은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이치와 일이 관통하고 모두 근거가 있으며 융합하고 통철하여 마치 강물을 터놓은 것과 같으니 경서를 읽는 것처럼 많이 읽는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까 근심입니다.”⁴³⁾라며 송시열에 대한

39) 『承政院日記』, 高宗 10年 癸酉(1873, 同治 12) 11月 甲寅.

40) 先生杜門燕居日將朱子書楮環讀又借校宮所儲尤菴集日帙潛心玩索頓忘湘累又苦(崔益鉉, 『勉菴集』, 年譜).

41) 余閑中看宋書日愧前者浪度幾之爲見也(崔益鉉, 『勉菴集』, 書, 『答永祚甲戌四月十日』).

42) 纍生妄以宋書近數朔掛目而未得其領要之萬一幸以讀法數三行下示如何(崔益鉉, 『勉菴集』, 書, 『上金重菴甲戌十月二十二日』). 혹자는 송서(宋書)가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아니고 송나라의 역사서라고도 주장하며 그 이유가 최익현이 『송시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아들과 김평묵에게 보낸 편지의 맥락을 볼 때 송서는 송시열의 시문집인 송자대전이 맞다.

외경심을 숨기지 않는다.

최익현은 이황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승 이항로의 제자이자 자신의 동기였던 양현수가 제주목사로 지내면서 남긴 덕을 느낄 수 있으며 송시열을 비롯한 오현의 자취가 여전함을 즐거워했다.⁴⁴⁾ 이러한 최익현으로서 송시열이 제주유배생활을 하던 자취를 돌아보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송시열의 제주 유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우암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둘러보고 쓴 시가 『우유허비(右遺墟碑)』다.

우유허비(右遺墟碑)⁴⁵⁾

초산에서 하룻밤은 강개만 북받치고
남은 마음 여기 왔건만 다시 어찌리
생강 심고 예론 펴낸 그때의 일이
오히려 맑은 바람으로 얼굴 스쳐 불어가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유허비는 권진응이 세운 것이다. 최익현은 이 유허비를 보고 송시열을 생각하며 비분강개를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송시열에 대한 최익현의 외경은 대단했다. 여기에는 송시열 역시 한때는 제주도 유배인이었던 까닭에 정서적 연대가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익현의 송시열에 외경은 무엇보다 조선시대 도학의 이념적 기반인 주자의 경학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던 당대의 거유이기도 했으며, 송시열이야말로 화서학파의 원류였기에 최익현에 대한

43) 勉菴崔益鉉先生崇慕事業會, 『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2009, 59쪽.

44) 『勉菴集』, 勉菴先生文集 7卷, 與李黃溪.

45) 一宿楚山慷慨多 餘心到此更如何 種薑編禮當年事 猶有清風拂面過(崔益鉉, 『勉菴集』, 右遺墟碑).

외경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최익현의 이러한 송시열에 대한 외경은 그가 접촉했던 제주도 사람 안달삼(安達三), 김희정(金羲正), 강기석(姜基碩), 김용징(金龍徵), 김훈(金堧), 김치용(金致瑢), 김양수(金養洙)⁴⁶⁾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제주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정치계와 사상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암 송시열이 제주 유배를 통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송시열은 100여 일밖에 지나지 않는 제주유배생활을 했음에도 굴림서원에 배향되어 제주오현으로 추앙받고 있다. 서원 배향은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후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하게 하는 교육적 동기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⁷⁾ 이는 곧 송시열의 제주 유배가 제주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시열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은 그의 유배와 서원배향뿐 아니었다. 그의 제자와 가족, 그리고 송시열 학통을 이어받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 영향은 지속된다.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의 증손인 권진웅과 이준중은 제주 유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송시열의 학풍을 전파하게 된다. 그리고 손자 송주석, 외손자 권이진 등도 제주와 인연을 맺고 송시열의 서책을 간행하는 등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김정희와 최익현은 제주 유배생활 동안 송시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였

46) 『勉菴集』, 勉菴先生文集 附錄 1卷, 年譜, 癸酉(1873, 高宗 10) 先生 41世.

47) 양진건,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교육사상연구회, 2010, 139쪽.

는데 이는 제주유림들에게는 교육적 모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연구가 송시열의 유배 생활 동안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사료가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송시열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제주 교육에 영향을 끼친 점을 드러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송시열과 제주 학통의 관계를 밝히고 송시열의 교육적 영향이 제주에 지속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2014년 5월 29일에 투고 되어,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國朝人物考』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金亮行, 『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
金錫翼, 『耽羅紀年』
金正喜, 『阮堂全集』
宋時烈, 『宋子大全』
_____, 『宋書續拾遺』
李元鎮, 『耽羅志』
林悌, 『南溟小乘』
張寅植, 『橘林書院廟庭碑記』
崔益鉉, 『勉菴集』

김익수, 『송시열의 직철학과 교육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면암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 『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2009.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_____,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_____, 『濟州 五賢의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_____,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교육사상연구회, 2010.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2000.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종성, 「명재와 유희당의 교유관계 및 사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 제48집, 대동철학회, 2009.

전웅, 『유배, 권력의 뒷안길』, 청아출판사, 2011

정낙찬, 「송시열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43집, 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Abstract

The Influence of Uam Song Siyeol's Exile on Education in Jeju

Kim, Seong-Tae* · Yang, Jin-Geon**

Song Siyeol influenced late Joseon Dynasty as much as he was called 'Songja'. He was exiled to Jeju because he opposed King Sukjong's decision of installation of crown prince. People in Jeju had difficulty in getting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benefit including educational one because Jeju is the frontier and there was the ban from leaving Jeju. Knock-out politicians who were exiled to Jeju wielded important influence. The Confucian nobility was politician and educator, so their educational influence was considerable. Song Siyeol also borrowed some books from hyanggyo, read and debated one another with people including his grandson, and wrote books spending free time. Additionally, he was not confined to a place of exile. Even if he stayed in Jeju for about 100 days, his contribution to education in Jeju was great, so he was canonized into a Confucian memorial hall, Gyulimseowon although canonization was strictly prohibited then. After Gim Jeong, Gim Sangheon, Jeong On, Song Insu was canonized at Gyulimseowon, Song siyeol was done, then five sages in Jeju

* Jeju Wimi middle school

** Jeju University

was decided. Canonization of five sages is significant as the work of confirming pedigree of Dotong. Moreover, some Song Siyeol's students also stayed in Jeju as administrators or exiles, celebrated their teacher and contributed to educational activities. Yi Jonjung and Gwon Jineung introduced the debate about identity and dissimilarity between human and matter, and Gim Chuntaek livened up the educational atmosphere by writing books. Gim Jeonghi composed a poem when he visited Song siyeol's place of exile, and Choe Ikhyeon served the education in Jeju by various activities such as reading, writing and teaching.

Key Words : Song Siyeol, exile, educational theory, five sages in Jeju, Gyulimseowon